

## 프롤로그 - 미국 물리치료 준비과정

미국 물리치료사 관심이 있었던 나(16윤종수)와 17한동환은 여름방학 동안 미국 물리치료 임상실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 지원하게 되었다. 어려운 시기라 여름방학이 되기 몇 주 전까지 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학과 교수님들의 지지와 학교 측의 도움 덕분에 미국 물리치료 임상실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으로 떠나기 위해서는 준비할 것이 많았다, 특히 지금 시기에는. 먼저 비행기표를 예약한 뒤에 ESTA를 신청해야 한다(<https://esta.cbp.dhs.gov/>). ESTA는 비자가 아닌 미국에 무비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의 개인정보 사전 등록 시스템으로 이 규정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은 최장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우리는 실습 병원에서 페이를 받지 않고 observation 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따로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한 뒤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확산 관련 미국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을 확인해야 했다([https://www.0404.go.kr/dev/notice\\_list.mofa](https://www.0404.go.kr/dev/notice_list.mofa)). 미국은 현재(21.06.28)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3일 이내에 진단검사(핵산증폭검사 또는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코로나 검사와 함께 음성확인서를 영문으로 발급해줄 수 있는 병원에 방문하여 출국 1-2일전에 검사를 진행하고 영문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우리는 김해 중앙병원에서 검사와 발급을 받았다).

그 외에도 여행자 보험(학교에서 지원을 해주었다.), 환전, 미국에서 사용할 카드 발급, 숙소 예약 등 많은 준비를 해야만 했다.

## 미국 물리치료 임상실습 일기:: 1편

뉴욕 비행기편이 오전 10시에 출발이라 전날 인천국제공항 캡슐 호텔에 지내기로 하였다. 김해 공항에서 김포공항행 비행기를 타고 내린 후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제 2터미널에 몇 시간 안 걸려 도착했다. 만남과 이별이 함께 있던 공항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텅 빈 공항만이 남아있어 공항을 통째로 빌린 느낌이었지만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길 바랐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캡슐호텔(다락휴)



텅 빈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다음 날(21.06.28) 아침이 되어 탑승 수속을 할 때는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탑승수속 마친 뒤 마침내 뉴욕 행 비행기에 올랐다.



대한항공 뉴욕(JFK) 행 탑승수속



뉴욕(JFK) 행 비행기 안

항공사 승무원들의 철저한 방역 수칙에 따르고 우리가 스스로 감염 예방을 하면서 장장 14시간 비행 끝에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다. 입국심사(Immigration)를 한 뒤 지인의 감사한 픽업으로 숙소와 병원이 있는 뉴저지의 Palisades Park로 이동했다.



뉴욕 JFK 공항 입국심사



뉴저지 Palisades Park에 위치한 숙소

미국의 뉴저지 주는 21.5.17부터 주 차원의 여행자 격리 권고 조치 해제된 상태로 의무적인 자가격리는 없었으나 3일간은 숙소에서 시차 적응을 하면서 자발적인 자가격리를 시행했다. 시차 적응과 자가격리를 마친 후 출근 전날 실습 병원 담당 선생님과 저녁식사와 함께 실습 전 OT를 가지는 시간을 가졌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담당 선생님께서 허드슨강 넘어 맨해튼이 보이는 River road 드라이브와 멋진 야경을 보여주셨다.



뉴욕 맨해튼의 야경



담당 선생님과 함께

월요일 아침(21.06.26) 우리가 출근한 병원은 'Prime Pain Clinic'으로 숙소에서 10분 남짓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바로 실습을 진행해야 했으나 먼저 백신 접종을 맞기로 하였다. 미국은 7월 4일까지 차량공유업체 'Uber'와 'Lyft'를 통해 백신 접종 장소까지 왕복 운행을 무료로 하고 있어 매우 편하게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하고 왔다.



뉴저지 Palisadedes Park의 Prime Pain Clinic



백신 접종을 하는 CVS pharmacy

화이자 1차 접종 뒤에 증상은 독감 주사를 맞은 정도여서 실습을 바로 진행했다. 백신을 맞고 난 뒤에 진짜 미국에서 실습한다는 실감이 났고 많이 배우고 느끼고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의료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가 한국과는 어떻게 다른지, 한국과 다른 물리치료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해하고 간다면 졸업 후에 물리치료사로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밑거름이 될 것 같다. 이러한 내용을 앞으로의 미국 임상실습 일기에 적어나가고자 하며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 동기들과 후배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한다.